

## 신의 심판을 흥내낸 오독의 묵시록

데이빗 핀치의 <쌌븐>과 단테의 <신곡>

김경욱 | 소설가

창조에 봉사하지 못하는 오독은 텍스트에 대한 치명적인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쌌븐>에서 악의적인 오독은 연쇄살인범의 죽음으로 종결됐지만, 현실에서는 그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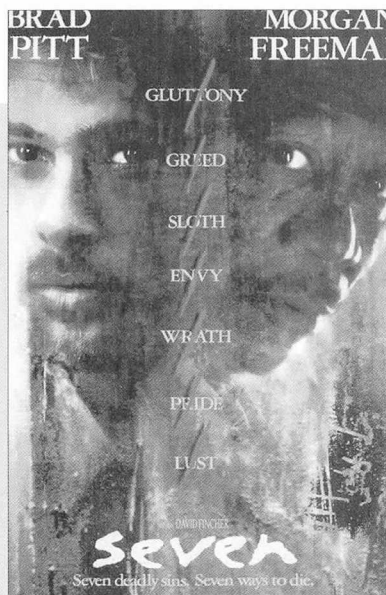
<신곡> <기독교의 역사> <냉혈한> <현대 범죄수사학> <살인자 광기> <새디즘에 관하여>... 이 책들은 신에 의해 인간의 죄를 심판하도록 선택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연쇄살인범의 도서목록이다. 학교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고 지적한 바 있는 서구의 어느 이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분류하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나름의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세계를 이해하고 가치평가를 내린다. 명확히 인식론적, 가치론적인 명제와 결부된 이 진술은 적어도 영화 <쌌븐>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책들을 읽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다.”

### <실낙원> 인용하는 연쇄살인범

데이빗 핀치의 <쌌븐>은 무척이나 암울한 영화다. 범죄가 만연한 도시에는 노아를 인류 최후의 생존자로 만든 홍수 때처럼 비가 내리고 경찰관의 아내는 병들고 타락한 세계에 아이를 내보내는 것이 두려워 임신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도 못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살인사건. 신이 천지를 창조한 그 기간 동안 연쇄살인범은 일곱가지 죄악의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를 단죄해 나간다. 마치 살인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에게 설교하려는 것처럼.

탐식 · 탐욕 · 나태 · 자만 · 욕정 · 시기 · 분노



데이빗 핀치의 <쌌븐>은 무척이나 암울한 영화다. 이 영화에서 연쇄살인범은 일곱가지 죄악의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를 단죄한다.

등 연쇄살인의 순서에 따라 배열된 일곱가지 죄악은 기독교적인 윤리관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텍스트상으로는 초서의 <켄터베리 이야기>와 단테의 <신곡>,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에 기록돼 있다. 연쇄살인범은 이런 책에서 다뤄진 죄악을 현실의 살인으로 단죄하려 한다. 심지어 살인사건 현장에는 밀턴의 <실낙원>이 인용되기도 한다. 연쇄살인범에게 책은 단순한 기호들의 집적물이 아니라 기독교적 윤리를 구현하는 길로틴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책이 아니라 책에 대한 의도된, 악의적인 오독이다.

스파게티를 열두 시간 동안 먹다가 탐식의 죄명 앞에 살해당한 첫번째 희생자의 방에 연쇄살인범이 “악에서 선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라는 <실낙원>의 부분을 인용하거나 탐욕이라는 죄명으로 변호사의 옆구리살을 1파운드 도려내 살해할 때, 그는 명백히 밀턴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의도적으로 오독한 것이다.

인용된 <실낙원>의 구절이 연쇄살인의 시작을, 살인사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는 살인범의 의도를 드러내는 메시지라면, 밀턴

의 텍스트는 낙원의 상실과 원죄의식이라는 기독교적인 컨텍스트에서 분리돼 다만 의미가 거세된 기호로 전락한다. 마치 필체를 숨기기 위해 잡지에서 오려붙여 만든 험박편지의 활자들처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옆구리살 1파운드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위트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편집증적인 파괴욕만이 저울질될 뿐이다.

연쇄살인범의 파괴적이고 편집증적인 오독은 밀즈의 아내를 죽이고 이에 분노한 밀즈가 발사한 ‘분노’의 총탄에 의해 순교(?)하는 장면에서 극에 달한다. 살인범은 밀즈의 아내를 죽임으로써 그를 분노의 죄악으로 파멸시키고 스스로 시기의 죄악으로 자신이 단죄되도록 한다. 일주일간에 걸친, 헤모

글로빈으로 점철된 오독은 연쇄살인범 스스로 인류의 죄악을 깨우치고 순교하는 메시아적 최후를 연출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 “세상은 아름답고 싸워볼 만하다”

헤롤드 블룸이 문학사란 오독의 역사라고 말한 바 있듯이 텍스트에 대한 오독이 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때의 오독은 악의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창조를 위한 오독이다. 따라서 창조에 봉사하지 못하는 오독은 텍스트에 대한 치명적인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영화 속에서 악의적인 오독은 연쇄살인범의 죽음으로 종결됐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러나 밀즈의 파트너인 서머셋 형사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헤밍웨이를 인용하면서 끝나는 영화는 끝내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헤밍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아름답고 싸워볼 가치가 있다고. 나는 적어도 후자에는 동의한다.” ●